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Issue Comment

- ✓ 해수부가 선박 신조와 S&LB 1 차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함
- ✓ 이는 해운재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중임을 보여줌
- ✓ 따라서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발주도 가시성이 높아졌음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발주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

6월 3일 해양수산부는 선박 신조와 S&LB(Sale & Lease Back) 1 차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조 물량은 1 조 1,835 억원 수준이며 S&LB 물량은 2,307 억원 규모이다. 해수부는 세부 검토를 위해 선박 운용 계획, 화물 운송 계약, 예상 금융 계약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요 조사 결과 발표는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분위기에 설득력을 더한다. 현대상선의 발주도 해운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재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중임을 알 수 있는 금번 해양수산부의 발표는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의구심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언제 누구에게 발주를 하는지에 대한 확답이 없어 유야무야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을 일축하고 하반기에 국내 조선사들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가시성을 높여주는 소식이다.

선박 신조와 S&LB 1 차 수요조사 결과

해운산업 재건 5 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해운재건 속도전…중소선사 선박 54 척 발주 신청

구분	선사	컨선	벌크	탱커	기타	소계	규모(억원)
신조	18 개	4 척	17 척	10 척	5 척	36 척	11,835
S&LB	11 개	4 척	3 척	11 척	-	18 척	2,307
합계	25 개 (중복 제외)	8 척	20 척	21 척	5 척	54 척	14,142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 5 개년' 계획에 따라 1 차로 실시한 선박 신조와 S&LB 수요 조사에서 54 척이 신청되는 등 해운재건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 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소선사의 선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1 차 수요조사 결과 18 개 중소선사가 36 척의 선박 신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신청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종은 컨테이너선 4 척, 벌크선 17 척, 탱커선 10 척, 기타선 5 척 등이다. 신조의 경우 전체 선가로는 1 조 1835 억원 수준이다.

2018-06-03, 머니투데이

자료: 해양수산부, SK 증권

자료 : 머니투데이,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